

음식점 하루 4곳씩 문닫는다

불황여파 작년 광주 1,546곳 폐업...이·미용실도 2배 늘어

취업 못해 '너도나도 창업'...경험·기술 부족도 원인

음식점과 이·미용실, 숙박업소, 노래방 등을 운영하는 생계형 자영업자들이 불황의 터널을 뚫지 못하고 휴폐업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휴폐업 사태는 지난 1997년 IMF 구제금융으로 인한 구조 조정과 일자리 부족현상이 가속화되면서 경험없이 너도나도 서비스업종에 뛰어들었던 것도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휴폐업 증가는 광주 일보가 광주시와 각 구청의 휴폐업 통계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광주지역의 경우 지난 2006년 한 해 동안 문을 닫은 음식점 수는 1천 546개, 매일 4개 이상의 가게가 사라진 셈이다.

음식점은 IMF 구제금융 이후 퇴직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창업에 나서면서 과포화상태가 이른 상태다. 2000년 이후 광주 시내에서만 매년 1천여 개 이상의 음식점이 폐업하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의 중심 상권으로 꼽히는 광주 상무지구까지도 매달 문을 닫고 전세를 내놓은 가게가 20~30개에 달한다는 게 주변 부동산 중개업소의 분석이다. 이 같은 상황은 외식 뿐만 아니라 숙박업소, 이·미용실, 노래방, PC방 대부분의 자영업에 공통된 현상이다. 이발소·미용실은 지난 2004년에 226개 업소가 폐업했으나 2006년에는 30% 가량 늘어난 291개가 문을

닫아 왔다. 숙박업소는 2004년에 28개가 사라졌으나 2006년에는 배에 가까운 55개가 셔터를 내렸으며, 노래방도 같은 기간 폐업 수가 50개에서 75개로 50%나 증가했다. 이중 지난 2005년 10월 전남도청이 이전한 동구의 자영업 휴폐업 상태는 극에 달해 동구의 상권 자체가 와해 상태에 접어들었다. 동구지역은 음식점을 비롯, 거의 모든 자영업의 폐업률이 지난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 음식점은 2004년 272개였으나 2006년에는 288개로 역대 최고치를 보였으며, 도심공동화로 숙박업소도 예년에는 폐업이 거의 없었으나 지난 해에는 무려 14개가 문을 닫았다. 도심의 성격상 다른 지역 보다 호

조를 보였던 노래방과 이·미용실도 폐업 수가 배 가량 늘었다. 대표 상권인 충장로상가는 2000년에만 해도 400개가 닫히는 점포가 올 2월 현재 300개에 불과하며, 매출액 감소는 더욱 심해져 도청 이전 후엔 수가 매년 줄어들어 불황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이명종(57) 충장로상가번영회장은 "경기불황은 소비자들의 외식이나 오락 등 모든 소비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기업의 고용도 위축시킨다"면서 "이로 인해 취업이 힘들어지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연히 소규모 음식점 등 자영업에 뛰어들어 경쟁이 치열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자영업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채희정기자 chae@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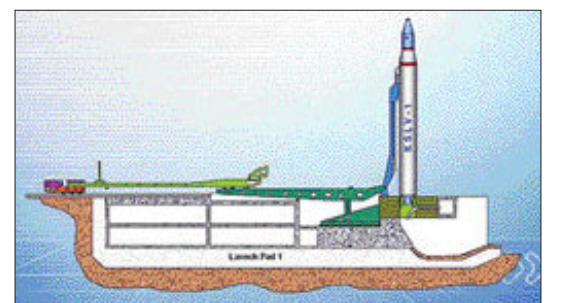
민족대표 33인 '그 날의 함성'

3·1절 88주년을 사흘 앞둔 26일 광주역 광장에서 열린 '3·1운동 정신계승' 행사에서 참가 대학생들이 태극기를 들고 '독립만세'를 외치고 있다. 민족대표를 상징하는 남녀 대학생 33명은 다음달 1일까지 전국의 주요 도시를 돌며 3·1만세운동 재현 퍼포먼스를 전개한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고흥 우주센터 위성발사대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다

현대중 설치...세계 13번째 보유

우리나라 우주시대를 열 고흥 나로우주센터에 설치되는 인공위성 발사대가 한국 기업의 독자 기술로 건설된다. 현대중공업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으로부터 고흥 외나로도에 건설되는 나로우주센터에 설치될 예정인 한국형 인공위성(KSLV-I) 발사대 및 관련 설비공사(단면도)를 일괄도급 방식으로 수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공사는 국내 최초로 자체기술을 이용해 실용급 로켓을 우주로 쏘아 올릴 수 있는 설비를 구축하는 대규모 공사다. 인공위성 발사대 관련 공사가 우리 기술에 의해 이뤄짐에 따라 우리나라는 세계 13번째로 위성 발사시설을 보유하고, 세계 9번째로 위성 발사능력을 갖춘 국가가 된다. 우주 개발분야에 있어 우리나라의 세계적 위상도 그만큼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자력으로 위성을 발사한 나라는 미국·러시아·영국 등 8개국 뿐이다. 또 이번 공사는 발사체 및 발사관 제 등 우리나라가 아직 미진한 분야의 핵심기술도 포함하고 있어, 기술적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이번 공사에서 고난도의 설계 및 제작 기술이 요구되는 발사대를 비롯해 지상기계설비, 추진계 공급 설비, 발사 관제설비 등 극저온·초고압



설비를 제작하게 된다. 현대중공업은 러시아의 핵심 설계자료를 분석한 뒤 자체 상세설계를 통해 독자기술로 발사대를 제작·설치할 예정이며, 내년 10월 100kg급 과학기술위성 2호를 발사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수년전부터 우주개발사업에 준비해 이미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했으며, 조선업을 처음 시작한 마음처럼 앞으로 우리나라를 우주강국으로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중공업은 이번 공사를 위해 올 초 울산 본사 플랜트사업부에 우주센터 관련 부서를 신설해 운영 중이다. 한편 나로우주센터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2008년 10월 위성 발사를 목표로 고흥 외나로도에 건립 중이며, 현재 조립동과 관제동, 사무동, 우주체험관 등이 90% 완공됐고 발사대 관련 설비는 부지만 정리된 상태다. /박치영기자 unipark@kwangju.co.kr

“남북 군비통제 논의하자”

오늘부터 장관급회담...정부, 중유 5만 톤 지원

정부가 올해 남북 간 군비통제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들에 대해 북측과 협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6일 '통일부 2007년 세부 업무계획'

에 따르면 정부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및 신뢰 구축에 적극 나서기로 하고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 포함된 불가침 분야에서 실현이 용이한 사안부터 우선적으로 이행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6면> 통일부는 이를 위해서 국방장관회담과 장성급회담 등 남북 군사당국간 대화의 정례화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27일부터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이 문제를 적극 제기할 방침이다. 정부는 세부적으로 남북 간 군사력 운용통제 및 상호검증 등 군비통제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군비통제란 군축과 군비축소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남북기본합의서에 적시돼 있지만 정부가 업무계획을 통해 이를 공식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북핵 '2·13 합의'에 따라 중유 5만톤을 북한에 지원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양창석 통일부 대변인은 26일 "제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의 합의에 따라 북측에 중유 5만톤을 지원하기 위한 내부 준비에 착수했다"며 "오늘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이날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위원장 이재정 통일부 장관)의 서면 협의를 통해 중유 5만 톤 지원에 드는 비용을 남북협력기금의 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결정했다. 5만 톤 지원에 드는 비용은 중유에 함유된 유황 비율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지만 대략 수송비를 합쳐 200억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남북한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6자는 2·13합의에서 북한이 60일 이내에 영변 핵시설을 폐쇄봉인하는 등 초기단계 조치를 취하면 나머지 참가국들이 중유 5만 톤 상당의 긴급에너지 지원을하기로 합의했다. /채희정기자 chae@kwangju.co.kr

유형별 장학 55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세종대 입시는 대학
진남과학대학

뮤지컬 '에비타' 광주공연
3월 9일(금)~11일(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공연문의: (062)220-0541, 1588-0768

가족봉안묘원 특별분양!!

www.park1004.com

062-521-1100

대부터 자손이 번창하고 부귀영화를 누린다는 「금계포탈형」의 아름다운 청계공원

062-521-1100